

## 우리가 길러내야 할 인재상(人材像)



정 갑 원  
원광대학교 총장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대량 시장 체제에서 개인 중심 생산 체제로의 변화를 하나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수백 만 수천 만을 상대로 똑같은 상품을 생산하고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중앙 집중식 체제에서 사용자 개인 욕구 충족의 맞춤형 공급 체제로 변하고 있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공산주의와 파시즘을 무너뜨린 민주적 자본주의가 보스니아에서와 같은 민족주의, 이슬람 세계의 근본주의 그리고 녹색운동과 같은 극단적인 환경운동, 반 세계화운동 등의 도전을 받고 있으나 지식과 정보, 서비스와 상품, 아이디어와 가치관 등 모든 면에서 국경이 무너지고 세계가 한 울타리 안에 통합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 분야도 국경없는 블럭화, 세계화가 가속되고 있다. 블로냐선언(1999)이 2010년까지 전 유럽의 교육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WTO 체제 하에서 모든 나라의 교육시장 개방이 불가피한 추세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자 중심의 일방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요구되는 시대로 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 목표가 물질적 풍요의 추구가 아니라 각 개인의 위엄과 가치가 보장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공동의 선(善)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건설하는 교육이 21세기의 나아갈 길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한국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근래의 일부 현상들을 보고 안타까움이 매우 크다.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난은 갈수록 심각하고, 청장년 세대는 직장과 노후생활 문제로 불안해 하고 있다. 더욱 근심스러운 것은 세계 경제가 회복 순환기에 접어들었다고 하나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CEO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70%가 “한국에 투자하는 것을 말리겠다.”고 대답했고,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18%인 반면, 감소한다고 보는 응답은 51%였다. 소득 2만불 시대의 기반을 갖춘다는 참여정

부의 발표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1995년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달성한 이후 아직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소득 1만불에서 6년 만에 2만불, 또 다시 5년 만에 3만불 시대를 달성한 것과, 미국이 1978년 1만불 소득에서 10년 만에 2만불 시대, 또 다시 9년 만에 3만불 시대를 달성한 것과 비교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하기에 충분한 자료도 가지고 있다. IMF에서는 한국이 경제 회복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하고 2004년 4.75%, 2005년 5.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외국 전문기관들도 한국의 2004년 잠재 경제성장률을 5~6%, 국내연구소들은 4~5%로 희망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성장과 분배, 발전과 복지를 두고 이견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양적 성장은 세계에 자랑하기에 충분하다. 세계 랭킹에서 GDP 13위, 외환보유고 4위, 해상 물동량 6위, 항공화물수송 3위, 연구개발 인력 9위 등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진입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 걸맞는 질적 성장은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우리가 당면한 경제적 침체와 사회적 갈등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여기에서 교육이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교육으로 이 땅에 희망을 심을 수 있다는 확신하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걸러내야 할 인재상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 I . 목표의식이 분명한 인재 기르자

개인이나 국가나 전환기에 처하거나 혼란에

빠질수록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1950년대 말, 구 소련이 세계 최초로 스푸트니크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을 때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국가위기를 선언하고 그 해결방법을 교육에서 찾도록 지시했었다. 우리는 교육열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개인 교육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도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원인을 교육에서 찾아 해결해야 한다.

오늘날 학생들은 왜 대학에 들어왔으며 무엇을 하러 들어왔는가에 대한 확실한 목표의식이 부족하다. 남이 가니까 들어왔고,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니까 들어왔다는 식이다. 대학 입시라는 수단적 목표는 달성했을런지는 몰라도 인생의 궁극적인 장기 목표를 달성한 것은 아니다. 우리 학생들이 인생의 장기적인 확고한 목표를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현재와 같은 무한경쟁 시대에 자기 목표가 없이 자기 친구와 비교하고 이웃과 비교하다가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는 이런 인재를 길러서는 안 되겠다. 절대적 목표 없이 상대와 비교하며 경쟁하는 경우 협동정신과 상생정신의 부족 등 나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최근 발행된 OECD 국제 학생평가 프로그램 보고서에 의하면 21개국 중 우리나라 학생들의 협동학습지수가 최하위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학생들에게 자기 인생에 인류애적 또는 이타적 절대 목표가 있을 때는 중간 목표 달성에 설사 실패한다 해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다시 일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 목표를 확실히 하고 대학생활을 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존경하는

인물을 모델링하도록 지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학생들에게 장기적인 목표를 갖도록 교육하듯이 교육당국이나 교육자들도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참다운 인재 양성에 나서야 한다. 큰 목표를 세우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으며 비효율적인 것은 효율적인 것으로 고쳐서 학교를 경영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 II. 3C를 갖춘 인재를 기르자

학교마다 어떤 특색 있는 인재를 기를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인간은 유전으로 인한 선천적 기본 능력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어떤 성품을 갖느냐에 따라 훌륭한 인재로 성공에 이를 수도 있고, 실패에 이를 수도 있다. 교육이 미치는 영향은 기본 능력 신장보다는 후천적 태도 변화에 효과가 훨씬 크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교육에서는 기본 능력보다는 학생들이 올바른 태도 즉, 습관을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시험을 잘 보는 지적 능력이 탁월한 인간이 아니라 기본 능력에 도덕적 인격을 갖춘 사람, 더 나아가 남을 위해 또는 대의를 위해 헌신할 줄 아는 인간을 기르는 것이 우리 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교육은 태교에서부터 평생에 걸쳐 이루어진다. 이런 과정에서 자기 분야에 지식을 많이 가진 인재만 배출한다면 그 사회는 부패로 얼룩지고 양육강식의 무미건조한 사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적 실력 못지 않게 어떤 품성을 갖춘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 우리 대학이 도덕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도 여기에

이유가 있다. 더 나아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높은 도덕적 품성을 갖추었다 해도 자기만 아는 이기적 인간은 또한 문제가 있다. 남을 위해 봉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3C, 즉 능력(competence), 도덕적 품성(moral character), 헌신 정신(commitment)을 두루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 III.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인재를 기르자

많은 뜻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모럴 해저드를 걱정해 온지 오래 되었다. 황폐해진 도덕과 윤리를 다시 세우지 않고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이룩하고 국제사회 경쟁에서 국가적 힘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가치와 이념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으로 가치관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신념으로 가치관 교육을 교육과정에서 대폭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궁극적 목표가 되는 가치와 수단이 되는 가치를 혼동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스스로가 소중한 존재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살아가는 가치관을 가진 인격체로 길러야 한다.

그 동안 우리 경제성장을 지탱해 왔던 근면과 성실, 사회를 발전시켰던 협동심과 정의감과 도덕심이 내면보다는 외모를 중시하고, 향락과 사치, 집단이기심과 물신주의로 전락하고 우리 사회를 갈등과 대결의 장으로 변화시켜 놓았다. 해이해진 사회기강과 무너진 도덕심을 하루 빨리 바로 세워 우리들이 정직하고 성실 근면하며 사회규범과 윤리도덕을 지키는

공공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교육이 학교 전 과정에서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국가나 사회의 인재 등용에서 학벌 위주, 특정 학교 졸업생을 지나치게 선호하는 사회분위기도 바꾸어 나가야 한다.

#### Ⅳ. 지구촌 시대에 맞는 인재 기르자

나라 밖으로 나가 보면 바깥 세상이 얼마나 심각하게 움직이는지 느끼게 된다. 미국, EU, 동남아 등 어디를 가나 미래를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이며, 경제도 교육도 모두 세계를 상대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의 흐름을 거역하거나 배타적인 민족주의는 고립을 자초하고 말 것이다.

민족에 앞서 같은 인간으로서 세계인과 교류하면서 세계적 공동 가치와 우리의 고유 가치를 잘 조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두 가치가 충돌할 때 내 것이 옳고 네 것이 틀렸다는 주장은 위험한 것이며, 내 것과 네 것이 다르다는 다양성에 눈을 뜨고 둘 사이의 약점과 강점은 조화하는 지혜를 가르쳐야 한다.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해야 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특징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2010년까지 고등교육 경쟁력을 세계 15위로 높이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려면 대학의 기준과 시설을 국제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웃 중국의 대학들이 초현대식 새 캠퍼스를 지어 학교를 이전하고 있으며, 일본의 양대 사학(私學) 중 게이오(慶應)대학이 와세다(早稻田)대학을 추월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게이오대학의 새 캠퍼스가 첨단 정보화 사회에 알맞는 인재 양

성소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었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외형적 캠퍼스 개선뿐만 아니라, 교수, 연구원 등 인력도 국립대학부터 외국인에게도 문호를 확대하여 국내 대학들의 분위기 일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보수적이고 콧대높은 영국의 일류대학들도 외국인을 학교경영자로 영입하고 있는 현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대학의 인프라와 인적 변화에 못지 않게 천편일률적인 특색 없는 교과과정과 그 운용 방식도 대학별로 특색 있게 조정, 개편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교류와 협상이 활발해지고 있는 현대에는 성숙한 토론 능력을 가진 인재를 기르는 것도 대학의 큰 몫이다. 토론의 나라 영국에서는 해마다 토론왕을 선발하는데, 케임브리지대학이나 옥스퍼드대학의 토론 동아리에는 수천 명의 학생들이 가입해 있으며 주말이면 항상 토론회가 열린다고 한다.

미국의 아카데미식 토론 방법이 토론의 전형으로 꼽히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이황과 기대승 간의 '사단칠정(四端七情)' 논쟁과 이간과 한원진 간의 '인성물성(人性物性)' 논쟁 등 선비의 금도가 있는 훌륭한 토론 문화가 있었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듣고 필요한 내용은 간단 명료하게 전달하며 상대를 이해하고 설득시키며 논쟁하는 토론문화의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겠다.

이러한 인재 양성이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며, 우리 교육자들은 교육입국의 주역이라는 영예를 안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대학  
교육